



[금융]  
지방금융  
전성기 이끈  
3金 시대  
06

## 증시 ‘블랙 먼데이’ 하루 새 40조 증발

韓日, 美中분쟁 등 대내외 악재 몰려  
코스닥 7.46% ↓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2.56% ↓ 3년 1개월來 최저  
원·달러 환율도 1215.30으로 마감

‘검은 월요일(블랙 먼데이)’이었다. 코스닥지수는 7.46%나 폭락했다.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Sidecar·프로그램 매도호가 허용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도 2.56% 급락했다. 5일 주식시장에 증발한 시가총액만 40조원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200원을 훌쩍 넘기며 1210선마저 뚫렸다. 달러·위안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도 원화 약세를 불러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까지 확대되며 악재가 몰린 것이다.

반도체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15포인트(2.56%) 떨어진 1946.98에 마감했다. 장중 저점은 2016년 6월 28일(1936.22) 이후 3년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은 패닉이었다. 전장보다 1.01포인트(0.16%) 내린 614.69로 출발



한 코스닥지수는 장중 6%대까지 급락하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지수 급락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 낙폭은 지난 2007년 8월 16일(77.85포인트)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지수 폭락 배경은 제약·바이오주였다. 신라젠이 이틀째(거래일 기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고 메디톡스(-19.07%) 셀트리온(-11.01%), 삼성바이오로직스(-7.18%), 셀트리온제약(-11.88%) 등이 각각 52주 신저기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시총만 38조8500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3조1600억원이, 코스닥시장에선 15조6900억원의 시총이 증발했다. 코스닥시장에선 하한가 4종목을 포함해 1230개 종목이 하락했고, 코스피 시장에선 816개 종목이 내렸다. 전체 상장사 가운데 93.5%(2046개사)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21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6원 오른 1203.6원으로 출발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200선을 넘겼다. 장중 한때에는 1218.30원까지 올랐다. 장중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월 11일(1201원)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30원 상승한(원화 가치 하락) 121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9일(1216.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은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지난 2016년 6월 24일(29.70원↑)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악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며 위험자산인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4면에 계속〉

/김희주·손엄지 기자 hsj89@metroseoul.co.kr



추락하는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3년여 만에 최저치를 코스닥은 장중 한 때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국내증시가 급락했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모니터에는 코스피가 전거래일에 비해 51.15(-2.56%)포인트 하락한 1946.98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

## 불화수소 등 20개 품목, 1년 내 국산화

### ■ 경제전쟁 전면전

日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100대 전략적 핵심 품목 선정  
R&D, M&A 등 45조 자금 지원



일본의 경제·산업 공습에 놀란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립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2, 3, 4, 8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핵심소재 20개 품목에 대해선 1년 내에 공급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수입국 다변화, 공장 신설·증설 신속 처리,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 등을 통해서다.

나머지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집중지원, 인수합병(M&A)과 해외기술 도입 등을 통한 기술획득 다양화, 빠른 인허가 및 탄력적 노동시간 적용 등으로 공급 안정화를 5년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R&D, M&A, 금융 분야에서 총 45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이달부터 꾸리고 관계부처 합동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실무지원단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면서

“이들 핵심품목에 대해선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

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100대 전략 품목 가운데 수급위험이 큰 품목 20개는 기업들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대체 수입국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목표로 정한 시간은 1년이다.

또 국내외 기업이 만든 관련 품목의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 수요기업의 생산라인도 개방키로 했다. 재고 확보,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보세구역 등을 제공하되 현행 15일인 저장기간도 필요시간 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계도 가능해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돋보기로 했다.

불산, 레지스트, 불화 폴리아이미드 등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공장 신설, 증설을 위해 환경 관련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80대 전략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위한 R&D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도 쏟아붓는다. 특히 긴급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전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bado@

## 한류대표 ‘K뷰티’, 中 수입시장서 日에 밀렸다

中 화장품시장 국가별 수입액  
日 7.7억 달러, 佛 7.3억 달러  
韓 7.2억 달러로 3위까지 하락

한국이 1분기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 1위 자리를 일본에 빼앗겼다. 한류대표 상품으로 기대를 받아온 K뷰티가 주춤한 가운데, J뷰티가 급성장하면서 글로

벌 경쟁의 주도권마저 내어줄 위기에 처했다.

5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무역개발 회의(UNCTAD)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 무역센터(ITC) 조사 결과, 1분기 중국 화장품 시장의 국가별 수입액은 일본이 7억7000만 달러(약 92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가 7억3000만 달러(약 8800억 원)로 2위, 한국이 7억2000만 달러(약 8600억 원)로 3위에 자리했다.

2015년 이후 3위권을 맴돌던 일본은 지난해 2위에 이어 올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이번에 3위까지 순위가 낮아졌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 업체들이 고가 제품을 앞세워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이다.

홍콩의 1분기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 역시 일본이 3억5000만 달러(약4200억 원)로 1위다. 싱가포르가 2억6000만 달러(약 3100억 원)로 2위, 한국이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로 3위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줄곧 2~4위에 그치다 이번에 1위로 도약했다. 한국은 2015년 후 줄곧 1위를 지키다 올해 들어 일

본, 싱가포르에 이어 3위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주도권을 잡은 일본은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화장품 수출액은 52억 달러(약 6조2000억 원)로, 전년 36억 7000만 달러(약 4조4000억 원)보다 42% 증가했다.

국가별 순위로는 프랑스, 미국, 독일, 싱가포르, 한국, 이탈리아에 이은 7위로, 지난해 8위보다 1계단 올랐다.

/김민서 기자 min0812@